

제 9 회

# 전국 현상모집 입상 작문

84 년도

— 발명사상양양 보급을 위한 —

- … 「월간 발명특허」 편집실에서는 제9회 전국 초·중학생…○
- …작문·만화 현상모집 수상작품중 최우수상·우수상·가…○
- …작상 수상작품을 연재하기로 하였습니다. …○
- … 어린이들이 평소 학교와 가정에서 생활하는 가운데 비…○
- …록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서 생각을 더해가고 문제를 발…○
- …견해낸 여러 이야기들을 하나 하나 읽어 갈때 우리의 앞…○
- …날은 펑 밝고 희망적이라는 것을 절실히 느낄 수 있을…○
- …것입니다. …○ <편집자주> …○



## ■ 국민학생부 ■

우수상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상>

### 분 필

서 정 훈

강릉 중앙국민학교 제5학년

어느날 학교에서의 일이다.  
 선생님이 설명을 많이 하시는 산수시간에 분필가루가 손에 하얗게 묻도록 가르치시는 모습에 생각이 떠올랐다.  
 “공부를 잘하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다정하고 사랑스러운 손…”  
 이 선생님의 손에 알미운 분필가루를 묻지 않게 할수 없을까? 하고 며칠을 곰곰히 생각

한 나머지 몇가지 실험을 해보기로 하였다.  
 하나의 분필에는 들을 묻히고 또 다른 분필에는 풀칠을 했다. 풀에는 집착하는 성질때문에 분필가루가 묻지 않을 것이라 생각되어 풀칠을 하고 또 하나에는 보통 쓰는 분필로 해 햇볕에 말린후 결과를 살펴 보았다.  
 분필에 물을 묻힌것은 손에

분필가루는 묻지 않으나 잘 썬지지 않고 분필의 낭비가 많았다.  
 분필에 풀칠을 한 것은 손에 분필가루가 묻지 않고 잘 썬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되어 풀칠한 것이 의외로 성공적이었다.  
 나는 정충정충 뛰고 싶을 만큼 기뻐다.  
 특히 이젠 선생님의 손이 깨끗해질 것을 생각하니 한없이 기뻐다.  
 아빠가 고등학교 교사이시기 때문에 아빠 생신날 내가 발명한 풀칠한 분필을 선물할 것을 생각하니 더욱 기뻐다.  
 다음에는 가정에서 불편한 물건을 찾아 고쳐 발명해 내고 싶다. ㄹ

■ 중학생부 ■

우수상 <한국과학재단 이사장상>

# 콩나물을 편리하게 자르는 기계

김 재 하

대구 등촌중학교 제3학년

태양이 귀가길을 서두를 때가 되면 어머니께서는 저녁을 서두르신다. 늘 가사노동에 시달리시면서도 한국인 어머니로서의 소명의식이 투철하시고, 우리들 가족에게는 빛 이상의 그 무엇이신 분이다.

“재봉아, 콩나물 좀 사오나라”

“예, 엄마!”

오늘도 저녁식단이 정해지고 그에 따른 잔일이 뒤따랐다. 잠시후, 동생인 재봉이가 콩나물을 들고 대문을 들어선다.

“재하야, 오늘은 네가 발명한 ‘콩나물 다듬기’ 성능을 시험해 보는 날이지? 자신 있나?”

“아이 어머니도, 저의 실력을 아직 과소 평가하고 계신 것 같은데 두고 보세요”

“원 녀석두, 자신이 만만하구나? 자 그럼 시작할까?”

마지막 적막이 무척이나 길게 느껴진다 싶더니 드디어 환호성이 울렸다.

“꽤 쓸만하구나. 수고했다.”

“것 보셔요 어머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젠 그 귀찮던 콩나물 다듬는 일은 안해도 되겠구나. 대견스럽고 고맙다.”

미소던 얼굴이 오늘따라 아름답워 보이도록 오랜만에 크게 웃고계신 어머니의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본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사랑과 정성으로 빚어 구워낸 조각품입니다. 이제껏 돌보시느라 고생하셨죠? 하지만 이제 더이상 어머니의 얼굴에 주름이 늘게하지 않을겁니다.’ 무척 자랑스러웠다.

타인들에게 외관상 작고 볼품없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당한 진통끝에 탄생된, 생명체 이상의 그 무엇임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달포쯤 전의 일이다.

“학교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니?”

바가지에 담긴 콩나물을 열심히 다듬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어머니, 귀찮으시지도 않으세요? 콩나물을 일일이 다듬으시게”

“이제껏 해오던 일인데 귀찮기는 녀석두, 갑자기 어미 생각을 다하구 내일 아침에는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그래도 콩나물을 한꺼번에 다듬는 기계 같은것만 있으면 어머니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을 것 아니요”

“그런게 어디있니 잔소리 그만하고 이 어미좀 도와다오 저녁 일찍 먹고 싶거든”

“만들면 있죠, 어머니 제가 하나 발명해 볼까요?”

“개주 있거든 만들어봐. 네 덕에 한번 편해보자”

“두고 보셔요. 제가 발명해 보일테니까요.”

“아서라. 아까한 말은 농담이다. 괜히 그 일 때문에 성적 떨어질라 그 시간에 공부나 열심히 해줬으면 이 어머니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아이 어머니도 이제 그만 손 씻고 들어가도 되죠.”

“그래 들어가 공부해라”

다음날 부터 그 생각을 하느라 멍청히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일이 자주 있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어머니 꾸중이 뒤따랐다.

“아니, 이 녀석아, 이 어미 속좀 그만 태워라. 남들은 시험 준비에 한창인데 넌 그게 무슨 꼴이냐?”

“걱정 마세요 어머니”

“걱정을 안끼쳐야 안하든 말든 할게 아니냐. 이제 그 생각 그만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응”

이런 일이 있는 뒤에는 그만둘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거창한 것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집념 때문에 생각도 떠오르지 않고, 잡힌 마음마저 달아나 버렸다. 걱정이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후에도 우리 식탁에는 몇번 콩나물이 올랐고, 그때마다 어머니의 모습은 안스럽기 그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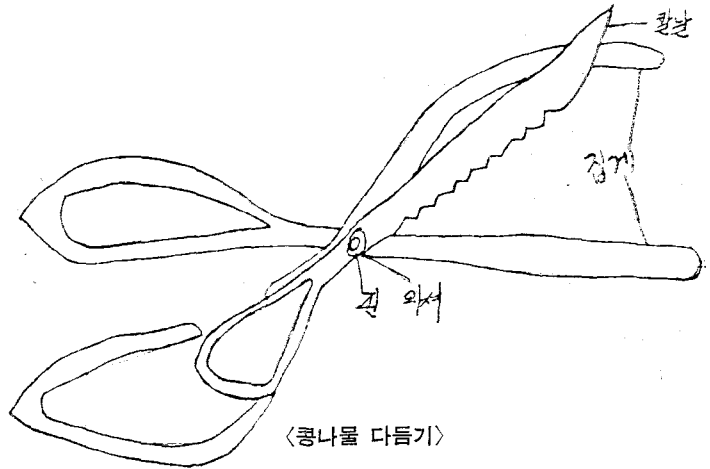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날 그 어느 계기에 의해 나의 모습을 보는 눈에서 돌보기 안경이 벗겨지고 유리 안경이 씌워졌다.

그 순간부터 고뇌가 역전되어 환희의 경지에 이른 지금까지를 나는 간직하고 있다.

어머니도 말씀하셨다.

“옛 성현 말씀 하나도 그른 것 없다.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는 말 말이다.”

이 기계는 어떠한 측면에서



볼때는 단순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나, 또 다른 측면에서 살펴 보면 복잡해 보이기도 한다.

모양의 특징은 가위를 닮은 점이다. 그 때문에 사용에 불편함이 거의 없다.

그리고 둥근 모양의 집게가 함께 달려있어 한꺼번에 다량의 콩나물을 자를 수 있는 용이함이 있다.

그러나 완전무결한 사물이 없듯이 이 기계 또한 단점이 있다. 두가지를 한꺼번에 자동식으로 해내는 기계가 되지 못해 두 동작을 해야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 단점은 차차 배우면서 연구하여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수많은 기계들이 있다.

태초부터 인간은 발명에 발명을 거듭해 왔다. 어쩌면 발명은 인간의 잠재의식 속에 얽연히 존재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잠재의식을 일깨워 표출함에 나아가고 있다.

나도 이제 그 영광스런 길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나의 첫 발명품은 ‘콩나물 다듬기’라 명명한다. ☺

## (案) 第20回 發明의날 紀念行事 (內)

日 時: 1985年 5月 21日(水) 10:00

場 所: 世宗文化會館 小講堂

主 催: 特 許 廳

主 管: 韓國發明特許協會

※ 其他 仔細한 問議는 電話 (557-1077~8) 韓國發明特許協會

發明振興部로 하시기 바랍니다.